

중국 국민방문 귀국보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나흘간의 중국 방문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큰 성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방문에는 세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중국과의 협조를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북핵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두번째는 경제와 통상관계의 확대였습니다. 중국은 이미 우리에게 제1의 투자대상국이자 제2의 수출시장입니다. 따라서 중국의 급속한 성장이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여건을 만들어 나가려면 긴밀한 상호협력이 필요합니다. 세번째 목표는 올해 새로 취임한 양국 지도자들간의 신뢰구축입니다. 양국의 정상이 직접 만나서 양국관계를 한 차원 더 강화시키는 것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뿐만 아니라,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열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관건입니다.

저는 이러한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자평합니다. 동행해 주신 경제인들과 국회의원들께서도 헌신적인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에 저는 후진타오 주석과 첫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솔직하고 진지한 대화를 통해서 의미있는 합의들을 이루어 냈습니다. 이 내용들은 양국이 함께 발표한 공동성명에 담겨 있습니다.

먼저 양국은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협조를 더욱더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북핵 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을 거듭 확인하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중국은 지난 4월 '3자 대화' 에서 보여준 것과 같은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다해 나갈 것임을 다짐했습니다. 한·중 양국은 이러한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자고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5월의 한·미 정상회담과 6월의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주변국과의 협력이 더욱 강화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또 후진타오 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자들이 우리의 '평화변영정책' 을 적극 지지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도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중국은 외교와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인적 교류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 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양국 관계를 종전의 '전면적 협력관계' 에서 한 단계 격상시킨 것입니다. 정부간의 교류는 물론 의회와 정당간의 교류를 확대하고, 청소년을 비롯한 민간 교류도 대폭 늘려 가기로 하였습니다. 또 양국 정상간 전화 통화와 같은 상시적 대화채널을 긴밀히 유지해 나가자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교류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민사·상사 사법공조 조약' 등 세 개의 조약과 협정들을 체결했고, 청두(成都)에 우리 총영사관을 설치하기

로 했습니다.

특히 양국은 경제와 통상 분야의 협력을 한층 더 심화,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CDMA 상용화와 자동차, 금융, 이동통신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는 차세대 IT산업을 비롯해서 전력산업과 자원개발, 환경, 유통 분야에 이르기까지 협력의 폭과 깊이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서부 대개발 사업' 과 황사방지 사업, 그리고 나노기술과 생명공학 같은 첨단분야에서도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중국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2010년 상하이 엑스포 준비에 한창입니다. 여기에도 우리 기업들의 참여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간 400억 달러 규모인 양국간 교역은 향후 5년 이내에 1,000억 달러 수준까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국간의 투자도 더욱 늘려 나갈 수 있도록 '투자보장협정' 의 개정을 추진하고, '1일 항공 생활권' 을 구축하기 위한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에 저는 중국의 명문대학 가운데 하나인 칭화대학을 방문해서 학생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래 세대의 주역들에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 를 열어 가자는 비전을 설명하고 토론도 했습니다. 중국의 젊은이들이 한·중 관계와 동북아시아의 미래에 대해서 더욱 깊은 관심을 갖고 공감대를 넓혀 갈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한·중간의 경제협력을 현장에서 이끌어 가는 주역은 양국의 기업인들입니다. 이분들과도 만나서 허심탄회하고 유익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중국에서 활동하고 계신 우리 국민들에게도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중국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 5위의 경제력을 갖춘 13억 중국 국민이

미래를 향해서 뛰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중국 경제의 급성장과 역동성을 직접 확인하면서 우리 경제의 앞날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경제의 눈으로 바라보고 위기의식만 가질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코 자만해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기득권의 목소리에 묻혀서 우리가 개혁을 이루어 내지 못한다면 그동안에 쌓아 왔던 소중한 성공도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이러한 도전을 동북아 경제의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충분한 준비를 갖추어 나간다면 중국의 개방과 성장은 우리에게 더 큰 시장, 더 큰 기회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나아가 한·중간의 든든한 유대를 바탕으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앞당겨서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세계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동북아의 미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는 없습니다.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여와 야, 그리고 노와 사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협력해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경제와 민생을 챙기고, 북한 핵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나가는 데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미국·일본 방문에 이어서 이번 방문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예우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현명하고 유능해서 받은 예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국민 여러분께서 땀흘려 노력하신 결과 오늘 우리 한국의 위상이 그만했기 때문에, 제가 가서 그만한 대우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 말씀 드립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저의 귀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